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11, 로마서 9:17-11:32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9:17-11:32의 11회기입니다.

바울은 예정론에 관해 이야기해 왔으며,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저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과 우리 삶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마음에 대한 어느 정도 통찰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아마도 내 지력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표준적인 것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9장에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예정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의 요점은 그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도 확실히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17절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몇 구절 후에 부르게 될 진노의 그릇으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일을 위해 내가 너희를 세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특별한 바로를 일으키셨을까요? 그는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바로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 9장 17절에 인용된 출애굽기 9장 15절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에도 실제로 약간의

자비가 있습니다. 문맥에는 약간의 자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없앨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너와 함께 있는 네 백성을 멸할 수도 있었으나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일으키고 너를 세웠으니 이는 너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대신에 바로를 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9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7.5장, 출애굽기 7:17 등에서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중에 일을 하고, 사실은 이미 한 일도 있지만,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관해 말하는 출애굽기도 그 점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여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는 그가 모든 나라 가운데 전파되어 그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계속해서 9장 24절의 문맥에서 유대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도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시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든 사무엘상이든 그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일을 이미 알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상 4장과 5장에서 법궤를 다루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그들을 보호해 줄 거의 마법적인 물건으로 여깁니다. 방주를 여기로 가져오면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죄 가운데 살고 있거나 죄 가운데 살아왔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빼앗은 법궤를 옆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이 그의 얼굴 앞에 쓰러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방주 앞에서 그의 얼굴에 엎드러졌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신을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날 그는 포로로 잡힌 적을 찾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얼굴에 쓰러지고 머리와 손이 잘려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계산하기 위해 손을 자르거나 David가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패배한 원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을 종양으로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방주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궤를 이스라엘에게 도로 가져갈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그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던라.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을 돌보셨습니다.

아브람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나라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시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느니라. 예레미야의 말대로 너희는 웅덩이와 물탱크와 물을 담지 못할 터진 물탱크를 스스로 판다. 당신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습니다.

아니면 호세아에서 당신은 나와 당신의 도움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최선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뜻대로 하는 자를 강압케 하시느니라, 9:18. 음, 이것은 출애굽기 33:19의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동정심이 있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모세에게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맥락에서였습니다. 확실히 모세는 그가 동정심을 가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라오를 강압하게 하시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12, 출애굽기 10:27, 출애굽기 11:10,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8장 15절과 32절에서도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압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이 인간의 자유 의지나 선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무엘에게 내일 사람을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시느니라. 그리고 사울이 아는 한, 그는 어디로도 보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와 함께 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글썄, 실제로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견자가 있는데, 그는 잃어버린 당나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 등의 사건을 통해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0장에서 앓수르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내 백성을 벌하기 위해 앓수르를 내 진노의 지팡이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나면 나는 그들의 오만함을 처벌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글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강팍케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19절.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표현은 역대하 20장 6절, 다니엘 4장 35절과 같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상의 대담자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즉, 이봐, 난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다면 왜 내 죄를 탓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글썄요, 본문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면 당신은 누구에게 질문을 합니까? 그리고 그는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에 관한 본문을 불러일으킵니다. 20절과 21절에서 그는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다른 본문도 있으며, 예레미야서 18장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두 본문, 이 두 본문의 그리스어 번역판인 이사야 29장 16절을 토기장이가 진흙과 같이 여길 것입니까? 만들어진 것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오, 당신이 나를 옳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야 45장 9절, 너를 지으신 자와 다투지 아니하겠느냐? 진흙이 만든 사람에게 '야, 너는 무엇을 만들고 있니?'라고 말합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너 생각 엔 너 지금 뭐하니? 이 항아리에 손잡이를 만들었어야 했어요. 점토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음,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불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용납하셨으니 이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인하여 심판으로 이루실 자니라. 인류의 역사는 왜 진행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이 계속되게 하십니까? 글썄요, 그분이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으시고 세상에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가장 큰 소리로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공의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내시면 사람들이 자비의 그릇이 될 기회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인내하여 자기를 나타내신 것과 같이 영원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한 다음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합니다. 그의 백성이 아닌 자도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호세아처럼, 자녀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대에는 이사야도 그렇게 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자녀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음, 창녀였던 고멜이 낳은 호세아의 자녀들은 모두 자기 것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닌 로 아미, 사랑받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로 루하마라고 짓습니다. 예.

내 말은, 사랑받지 못하는 딸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내 백성이 아닌 로 아미라고 불린 자들이 내 백성 아미가 될 것이고, 로 루하마는 사랑받는 라하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호세아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문맥상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신 후에 그들은 그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호세아 1:9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으로서 거절당한 후에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로마서 9장에서 그 언어를 매우 적절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른 본문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장, 3장을 보십시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때 많은 민족이 시온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혹은 이사야 19장과 21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내 백성은 애굽을,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를, 나의 기업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노라.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여호와와 연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과 11절에서 많은 나라가 주와 연합하여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또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열방 가운데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몇몇 구절에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 그리고 여기에서는 2016년에 출간될 문화적 배경 연구용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대부분의 노트는 제가 썼습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종종 공통 문구로 텍스트를 연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게셀 안식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9장 26절에서 방금 인용한 호세아 1장 10절의 이스라엘이 해변의 모래와 같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은 이사야 10장 22~23절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합니다. 해변의 모래에 관해 여기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두 성구의 일부 표현을 혼합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별하시고 남은 자만 남겨 두신다. 그 다음 우리는 이사야서의 또 다른 남은 본문인 로마서 9장 29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할 것인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중 오직 일부만이 심판에서 살아남는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꽤 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너희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코라진.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보다 나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이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하나님께서 민족적 편애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점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잘못된 방식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점을 계속 검증해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Paul은 계속해서 돌아와서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특정 포인트에 대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어쨌든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자주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를 잡았느니라. 30절,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으나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믿음보다 행위로 이를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운 입장을 얻기 위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또는 단지 자기 개선의 수단으로 율법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당신은 율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작품의 입장.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의 율법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신이 민족을 기준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언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언약 안에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올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읽은 특정 구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사해 두루마리에서 이러한 찬송가를 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에 대해 말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주받았습니다. 쿨란 찬송가 중 하나에서는 나머지 이스라엘을 벨리알 공동체, 즉 사탄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즉, 꽤 강한 언어라는 뜻입니다.

반유대주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일부 유대인 그룹은 다른 유대인 그룹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경건함을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랍비들이 어떻게, 특히 바리새인 교사들의 후손인지, 법을 모르고 법을 이해해야 하는 만큼 이해하는 일반 사람들인 암 하레츠(Am haretz)를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처럼 행동하면서 요점을 놓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우리가 더 나은 것처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일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젊어서 회심했다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중 일부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일찍 개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보다는 행위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3장 27절에서와 같이 어떤 율법에 따라 율법에 대한 대조되는 접근 방식을 듣게 됩니까? 행위의 법칙으로? 아니요,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에서 더욱 발전하는데, 나는 10장의 첫 부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글썄요,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기 전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학자들이 10장 4절 텔로스에 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율법의 폐함은 율법의 폐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지 율법의 목적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것이 법의 목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맥상 생각해보니 실제로는 법의 종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 정당화를 위한 법의 종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법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어. 그러나 이 용어는 법의 목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31에서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것이 10:4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법을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법의 끝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걸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9장 33절에서 그는 본문을 다시 혼합합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이사야서에서 이 두 본문을 혼합하는 공통 핵심 용어는 돌이라는 용어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이스라엘은 돌처럼 하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이사야 28장 16절, 무릇 신뢰하는 자는 피스튜온이라 하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두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아니하며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중 10장과 11절에서 이 점을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저장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돌이라고 인용한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연결하는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과 10절에서 인용하신 시편 118편 22절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순례자들이 오는 예루살렘 유월절에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렐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에서 돌과 관련하여 그분은 당신이 돌에 떨어져 부서질 수 있거나 돌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을 부서뜨릴 수 있는 다른 구절들을 함께 연결하셨습니다. 믿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채석, 심판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 어딘가에 있는 동상에 있는 여러 왕국에 대해 그가 말한 내용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돌처럼 임하여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먼저 이 본문들을 함께 연결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특정 텍스트의 다른 구절에서 이러한 텍스트를 함께 연결합니까? 내 생각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돌문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성한 돌로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광야의 반석이시며 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이 많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중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만, 그의 본문 중 하나가 모퉁잇돌 본문이라는 사실은 아마도 예수께서 모퉁잇돌에 관해 가르치셨던 내용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로 가세요. 우리가 율법을 올바른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은혜의 메시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는 강한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바울은 10장 5절과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리라라고 인용했습니다. 글쎄, 바울은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그 죄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부터,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백성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것은 신명기에서 꽤 자주 나오는 후렴구이며 레위기 18:5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비유를 통해, 또는 순종을 통해 영생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짜내는 방식으로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글쎄요, 그들 스스로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들을 눈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충분히 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바울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라는 가설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자들이 회당에서 그들과 토론하면서 이 문제를 꺼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친숙한 증거 텍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에 따라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키지만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장 6절부터 10절까지에서 바울은 누군가가 증거 본문을 인용하면 반박 본문을 인용할 때 훌륭한 랍비가 하는 일을 합니다.

10장 6절부터 10절까지에서 그는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에 대해 미드라쉬를 합니다. 그는 신명기의 이 구절을 바탕으로 유추하여 그것을 현대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 천국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모세는 구약성서처럼 타나크에서처럼 토라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토라를 하늘에서 내려오기 위해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토라와 이러한 유사점을 만들려고 할 때 유대 전통에서는 훨씬 더 나아갔지만 비교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바다를 건너는 것을 의미하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신명기에서는 음섭강,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내려갈 때 바다로 내려가는 바다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깊은 곳이나 심연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더 나은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신명기 30장과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것을 적용한 것 사이의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신명기 30장은 누가 하늘로 올라갈지, 누가 하나님의 선물인 토라를 가져오기 위해 올라갈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모셔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 토라는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느냐? 그것은 바다를 건너 다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다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까? 그는 한 곳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방식과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첫 번째 언약 사이에 비유하고 있는데, 음, 사실 그것은 첫 언약도,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씀이 네게 가까이 왔다고 말한다.

글쎄, 당신 근처에 있던 단어는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문맥에서는 토라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전파하는 당시의 말씀, 사도적 메시지,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믿음의 메시지(8절)에 적용합니다. 신명기는 말씀이 네게 가까우며, 그것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맥락에서 그것은 아마도 토라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 항상 말하는 방식을 봅니다. 집에 있으니 어디에 있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당시의 말씀, 즉 그가 전파하는 믿음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입에 있고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입에선 어때요? 당신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시다시피, 바울은 여기서 단지 입과 마음을 임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 해석을 가르칠 때 대개 사람들이 문맥에 관계없이 인용하는 구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도달할 때쯤이면 사람들은 정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건가요? 당신이 귀먹고 병어리여서 입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절대적으로하지. 그것은 요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요점은 그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 때문에 믿음의 고백인 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연관될 것입니다. 입으로 말할 수 없다면 수화 등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계속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 여기에서도 그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최근에 인용한 것처럼 로마서 9장과 33절에서 더 자세히 인용합니다. 모퉁잇돌이신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리스어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랍비들은 그들이 말하려는 내용에 가장 적합한 번역을 혼합하고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것은 성경적인 원칙이다. 실제로는 그 텍스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종말론적인 부끄러움,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장 13절의 두 절 뒤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가 인용할 13절의 본문과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는 그가 12절에서 말하려는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이사야서는 믿는 사람만 말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본질적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표현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것은 익숙한 기술이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흔히 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수행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12절에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강조를 계속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같은 주님이신지를 말합니다.

그는 방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것 위에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는 모두를 위한 사람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는 적어도 영어판에서는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미 3장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이것을 11절의 앞부분으로 다시 말한 것과 연결합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문맥에도 적용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은 누군가와 성경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약 8마일을 걸어 교회에 갔습니다.

그 당시 나는 더 어렸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서 낮잠을 자기 전에 뭔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증인 두 명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르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10 장 13절에서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예,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이름, 이름, 신성한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맥락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십시오. 사실 저는 많이 피곤했어요. 내 두뇌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나는 단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맥락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 신성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위해 실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가 그것을 사도행전 2장과 21절에서 적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령이 부어질 때가 이르렀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이 말한 이 시대는 구원의 시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이 부를 주님의 이름, 쿠리오스의 이름은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주님은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손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38절과 39절에서 그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즉,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음, 당신이 부르려는 주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꽤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회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릇 너희 아들과 모든 먼 데 사람을 부르시리니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Joel의 인용문의 끝 부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가 미드라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 그는 요엘의 본문,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폴이 여기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해석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순절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는 왜 안 됩니까?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절과 15절에서 그는 또 다른 부위, 또 다른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다른 어느 곳보다 로마서에 이러한 내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13절).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소문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전파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실제로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성구를 인용합니다. 안타깝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은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로를 내사 자기 백성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하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은 구원의 좋은 소식, 평화의 좋은 소식,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좋은 소식, 곧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글썄요, 일부는 보내졌고 메시지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10장 16절에서는 듣는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지적한다.

믿으려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머거리라면 제외되지만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메시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면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모두 믿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했듯이, 우리가 전한 말과 문맥에서 전하는 우리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절이 곧 이사야 52장 7절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의 맥락과 당시 사용되었던 다양한 유대교 해석 접근법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16절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때때로 문맥에서 벗어나 인용되는 텍스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에 가서 누군가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테이프 등으로 성경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요점은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직접 읽고 있고 여전히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 이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는 특히 복음의 메시지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여기서 책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음, 이방인들은 우상숭배가 나쁘다는 것을 책임질 만큼 창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창조에 대한 복음을 주지는 않지만, 그들 자신보다 더 큰 존재에 의해 명백히 설계된 창조된 것들을 숭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한 지식을 줍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퍼진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여 이를 뒷받침합니다. 글쎄, 그게 무슨 뜻이야?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모두가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대표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9편의 문맥인 1절부터 4절까지는 로마서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조의 증거입니다.

어쩌면 이는 보편적인 책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죄에 대한 보편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복음,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창조의 증거에 비유하여 호소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신 것처럼, 로마서 9장 앞부분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아니면 창조에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많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사실 시편 19편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19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에는 토라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10장 19절에서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신명기 32:15, 18).

그리고 신명기 32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다른 백성을 맞이하셔서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모퉁잇돌 본문으로 돌아오듯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에 대해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를 통해 자기 백성을 질투하게 만드시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질투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글이 중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 또는 이사야 65장 1절과 2절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내가 만나리라.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심할 여지 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용문에는 반드시 나오지는 않지만 이사야 65장 1절에는 나를 부르지 않은 나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문맥에서 그것은 그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로 돌아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문맥에는 이사야 56장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을 알리시는 다른 구절들과 같은 몇 가지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사야 65장과 2절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은 11장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아주 열심히 논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 민족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장에서 그는 다시 돌아와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시대에 그들은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해 큰 논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구약을 읽는다면 그것은 주로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자, 제가 구약성서, 신약성서라고 부르는 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어진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성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언약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다윗에 관한 이야기 등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더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지적하자면,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언약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성경과 예수님 오신 후의 성경을 말하는 것은 좀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공통 명명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는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11장에서 단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강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교회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을 갖고 계시며, 그의 유대인 백성이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차피 우리 유대 신앙과 유산으로 개종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우리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당신은 접붙임을 받았고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질투심이 유대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남은 무리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소수의 유대인들만을 의미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 전체와 대조되어 사용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 개개인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은 주기적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룯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경호원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헷 사람 우리아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실했던 광야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세대의 대부분은 그들이 처음으로 광야로 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아주 작은 잔재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그 땅으로 들어가니 보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느니라 글썄요, 이제 남은 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꽤 가까울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아간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아간은 자기 백성을 배반합니다. 그는 텐트 밑에 전리품을 숨깁니다.

그의 가족은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가족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백성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라합과 고의적으로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전리품을 천막 밑에 숨긴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정탐꾼들을 자기 지붕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일로 그녀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때때로 선지자들에게서 보는 것은 이것이 더욱 퍼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확실히 1세기에 여기에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크기에 관계없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가 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원이나 타원이 있는데 그걸 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 민족 개개인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체적인 언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환영받았습니다. 오경에서는 그 땅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9장 4절,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부르시는 연속성을 포함하여 그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장까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남은 무리를 말하면서 자신을 예로 제시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것은 유명한 베냐민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유대인 이름이 나오는 사도행전의 내용과 매우 일치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국가적 배교 기간 동안 엘리야의 항의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여호와와의 선지자를 버렸습니다.”라고 항의합니다.

이때도 엘리야가 크게 낙담한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도 이세벨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상당히 낙담했습니다.

나 혼자만이 주님의 선지자를 떠났습니다. 그는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실 오바다는 이미 그에게, 내가 50명씩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만이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중에 랍비들이 이것을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여 행한 나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입니다. 엘리야가 이에 항의하니 나 혼자 남았느니라.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Remnant)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한 자, 거짓 신, 거짓 신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울은 5절에서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의미하는 남은 자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의 상태에서 유대인 신자의 비율은 아마도 3~4세기부터 20세기까지 대부분의 역사를 통틀어 그 비율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은 자들을 강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유대 민족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고대 유대 관습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8절의 구절들을 혼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몇 가지를 섞을 것입니다. 흥미한 영은 이사야 29장 10절의 헬라어 번역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흥미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신명기 29장 4절의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다른 텍스트를 연결합니다.

그는 방금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지만, 그는 약간의 텍스트를 혼합할 것입니다.

함정이라는 단어는 시편 34편과 8절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도 올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바울은 이 단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성경을 앞뒤로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섞을 때 그것은 그들의 기억에서 우연히 인플레이션된 것이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전체 구절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Paul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 생각에 그는 시편 69편의 전체 구절을 상기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은 시편 22편처럼 의인이 고난을 받는 시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시편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변호를 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장 의로운 고난을 겪는 사람들, 즉 예수님께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 세부 사항은 예수님과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시편 69편 15장 3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의인들이 탁월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 다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의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것이 생각나는데,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 질투하게 하리라.

글쎄요,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내가 이방인 여러분을 염려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과 그의 사역에 관심을 갖는 한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셨느니라 그들을 통해 그는 자신의 백성을 시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용어는 열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그들이 지식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선한 열심, 선한 질투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방인들의 마지막 집합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 민족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와,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보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라, 이 이방인들 중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더 열심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을 질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시간이 가면 시간도 흐르고 재림 이전의 역사가 계속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역사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갔다면, 그래도 이 이방인들이 모여들고 있고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유대 민족은, 와, 지금 우리보다 이방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 선지자이신 예수를 통해서이며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 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원 가지를 거스려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방인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일어났고, 신약에서도 일어났고, 70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교체했고 누가 그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역사를 통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재판 중에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익사할 때까지 물속에 가두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포그롬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화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잔학 행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돌아서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어떤 세대에 대한 조건적인 소망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이 뭔가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유대 민족이나 어떤 민족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토라의 정신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 즉 옳은 일을 행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접붙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나무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접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생 올리브 가지를 길들여진 나무에 접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는 잘라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접붙임은 본성에 어긋나게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썄요, 유대인들은 종종 자기 민족을 올리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사실 로마에는 감람나무와 같은 이름을 가진 회당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정확히 몇 세기에 유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 신자들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개종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부러진 가지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직관했을 수도 있고, 49년부터 54년까지 주로 이방인 교회였던 이 로마 교회가 이미 "좋아, 우리는 유대인 요소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추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치가 시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고대 아리아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내 말은, 고위급 나치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교회를 장악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 기독교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대성이나 교회의 구약성서의 유산 등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식으로 매우 마르시오파였습니다. 그들은 제국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가 이방인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치 신학자 중 한 사람은 이방인의 갈릴리는 모두 이방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물론 고고학은 유대 사람들이 정착했고, 이 시점에 갈릴리에 다시 정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탈유대화할 많은 것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경 연구에는 여전히 반유대주의적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리스와 로마의 배경을 좋아하지만 유대인의 배경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구약의 배경은 신약의 신학적인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읽습니다.

즉, 왕국의 좋은 소식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유대 민족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방인에게로 갈 구실을 주는 사도행전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장, 28장. 마찬가지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유대 민족이 돌이킬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기 위해 그 일이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이러한 변화는 선지자들의 기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여기 11장과 26절에서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개종한 이방인이란 그가 이스라엘 전체, 즉 개종한 이방인과 유대인 남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많은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그가 이방인의 총만함을 말할 때 그것은 그 이하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남은 자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좋은 소식이 모든 나라에 전파될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이방인의 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로마서 11장의 다른 모든 곳에서 그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유대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에 관해 말할 때, 아마도 그는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도 그가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확한 내용은 그가 돌아오기 직전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그가 돌아온 이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면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완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는데, 때로는 선지자들과 사도행전에서도 그러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거의 누군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견해를 무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들을 요약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서로 어떻게 맞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온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과 대조를 이룬다. 그 당시 살아 있던 모든 유대인 개인을 의미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쉬나와 헤드론(10:1)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두개파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그러므로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유대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의 표현과 일치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들과의 나의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사실, 그들과 맺은 언약의 일부 언어는 이사야 27장 9절이나 에스겔 36장 26절의 회복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의 대부분은 이사야 59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이 앞에 오는지, 비유적으로나 문자적으로 또는 무엇이든 뒤에 오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체가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는 각 절의 마지막 부분에 각 절의 주제를 요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9장 25절과 26절에서 암시된 것처럼 불순종의 규칙을 교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송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9장부터 11장까지는 끝났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를 절묘하게 계획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교하게 설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정교하게 설계하셨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이 사람들이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며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송영은 또한 로마서의 다음 부분인 12장부터 권고의 마지막 부분까지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송영을 좀 더 자세히 저장해 두겠습니다. 이 송영은 실제로 이 섹션의 일부이지만 다음 섹션을 위해 어떻게 설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9:17-11:32의 11회기입니다.